공연보기 좋은 날, 야외무대서 만나요

광주문예회관 야외공연장
10일·16~17일, 광주시립발레단
11~12일, 국악관현악단 무대
15일, 아카펠라그룹 '메이트리'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

광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 극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야외로 무대를 옮겨 시민들을 만난다.

야외에서 공연 보기 좋은 계절,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시민들에게 초여름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다.

문예회관 야외무대는 기존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와 비슷한 규모로 설치됐다. 좌석은 300석 정도로 기존 대극장 관람석에 비하면 적은 규모지만, 야외무대인 까닭에 문예회관을 찾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예회관 야외무대에 가장 먼저 오르는 건 광주시립발레단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은 10일과 16~17일 오후 8시 수시공연 '힐링콘서트'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힐링콘서트'는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았다. 쥘 페로의 '파트 카트르'를 시작으로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파랑새' 무대가 이어진다.

이어 서아시아 쿠르트족의 전쟁 출전을 위한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힘차고 강렬한 리듬감이 돋보이는 가야네 중 '칼춤', '돈키호테' 중 '파드 되', 마지막으로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제 5막에 삽입된 발레로 신과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환상의 밤을 묘사한 경쾌하고 이국적인 작품 '발푸르기스의 밤'을 선보인다.

오는 11일과 12일 오후 7시 30분에는 국악관현악단의 수시공연 '장밋빛한마당' 무대가 마찬가지로 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을 기다린다.

특별한 공연도 마련됐다. 400만 유튜버인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4년 만의 광주 무대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포커스 (Focus) '메이트리, Would You Follow Maytree?:)' 공연이 15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는 타이페이국립극장 전석 매진, 유럽합창올림픽 금메달, 오스트리아 세계아카펠라대회 골드 디플로마 수상 등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아시아 최정상의 아카펠라 그룹이다.

메이트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유튜버로 변신, 짧은 시간 동안 400만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이들이 업로드한 아이폰 사운드 이펙트 영상은 6500백만, 오징어게임 영상은 2억 3000만이라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메이트리는 이날 'Happy', '비행기', 'Astrud', 명화 메들리, '상어가족', 'Money', '그대 다시 내게', 'Born this way', 디즈니 OST 메들리, 'Circle of Life' 등 환상의 하모니와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11곡의 노래를 선물한다.

지난달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하늘마당에서 선보인 광주시립발레단 '빛의 정원 Ⅱ' 공연 모습.

문예회관은 회관 야외무대 뿐만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 야외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하늘마당에서 선보인 광주시립발레단 '빛의 정원 Ⅱ'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석 무료.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사전예매(비지정석) 또는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522-8716.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지혜

주민혁

주민혁·최지혜 듀오 콘서트

1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클라리넷 연주자 주민혁, 플루트 연주자 최지혜 듀오 콘서트가 12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프랑스로부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쇼송, 생상스, 드뷔시, 폴랑, 메시앙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

부부인 두 사람은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세번째로 이번 듀오 콘서트를 준비했다. 사실,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함께 어우러진 레퍼토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인터넷 등에서 연주곡들을 발견하면 악보를 사 두거나 유심히 챙기면서 연주를 준비한다.

이번에 함께 연주하는 생상스의 작품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작은 모음곡'도 원래 네 개의 손을 위한 피아노곡으로 작곡된 작품을 편곡한 버전이다. '조각배에서', '행렬', '미뉴에트', '발레' 4곡으로 구성된 작품은 드뷔시 특유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또 현대 음악 작곡가 코네송의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테크노 행진'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개별 연주곡으로는 생상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와 폴랑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메시앙의 '검은새' 등을 들려준다.

주민혁은 경희대 음악대학과 프랑스 무동국립음악원 연주자 과정, 오베르빌리에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상임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최지혜는 이화여대를 거쳐 인디애나 주립대 음악대학원 석사 및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조선대에 출강중이다.

이들 부부와 세번째 호흡을 맞추는 피아니스트 이철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했으며 이탈리아 아말피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입상했다.

최지혜 플루티스트는 "늘 함께 있는 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듀오 연주회를 시리즈로 만들어보고 싶다"며 "앞으로 클라리넷, 플루트, 피아노 이외에 다양한 악기들과 함께 연주회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다시 태어나는 우리 소리'

밴드 악셀 공연, 11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행하는 11일(오후 3시) 토요상설공연은 국악창작무대로 꾸며진다. 밴드 악셀〈사진〉의 'RE :Birth 다시 태어나는 우리 소리'.

'악셀'은 악셀레이터(accelerator)의 '전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樂sell'로 표기된다.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2021년 창단됐으며 판소리, 대금, 피리,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드럼으로 구성됐다. 국악을 중심으로 클래식과 재즈, 대중가요 등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매개로 새로운 국악을 선보이고 있다.

공연의 문은 '비나리'로 연다. 이어 창작곡 '난봉가', 뺑덕어멈을 주제로 한 'SAVAGE', 심청가를 주제로 한 '심청가와 녹턴', 춘향전의 '어사출도'와 '사랑가', 광대를 표현한 '광대' 등이 펼쳐진다.

연주에는 건반 강동원(악셀 대표), 소리지명인, 피리·태평소 박시은, 대금 고수연, 기타 정정민, 베이스 이주형, 드럼 김우석이 출연하며 사회는 박광신이 함께한다.

한편 오는 18일 연희·무용 무대에는 '(사)한국전통예술협회, 한국춤풍류전 송미숙의 예도(藝道)'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062-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리 만나는 아시아문학'

ACC·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 소설가 심윤경 등 참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 아시아도 큰 변화의 파고 앞에 놓여 있다. 질병, 재난을 비롯해 국가폭력, 차별과 혐오 등의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하고 재해석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아시아 시각과 문학 주제로 풀어내며 함께 사유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아시아의 문제 외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작가의 작품을 다룬 시간도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과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조직위원장 이경자)가 함께하는 '미리 만나는 아시아문학'이 그것.

오는 9월 29일까지 ACC와 전남대, 조선대 등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제4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사전 행사로 마련됐다.

오는 23일 조선대에서는 소설가 심윤경의 '인류가 마주친 폭력과 갈등의 맨얼굴: 동유럽 작가들의 목소리'가 예정돼 있다. 심 작가는 우크라이나 안드레이 쿠르코프의 '펭귄의 우울', 벨라루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등 동유럽 작가들의 고뇌와 사유를 소개한다.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질병을 제압하는 중국의 독특한 방법을 소개하는 강좌도 눈길을 끈다. 목포대 신정호 교수는 '중국의 감염 질병과 '역(易)'이야기'(7월7일)를 모티브로 시민을 만난다.

소설가 심윤경

이밖에 고재종 시인과 고명철 문학평론가의 '경계를 넘는 언어와 의식'을 주제로 한 대담(9월 15일), 채희윤 소설가가 진행하는 '독자들과 함께하는 아시아 문학'(9월 29일)도 예정돼 있다.

한편 소설가 김남일은 지난 9일 '동아시아의 작가들이 처음 만난 근대의 얼굴'(ACC 문화정보원)로 동아시아 작가가 마주했던 근대의 모습을 이야기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